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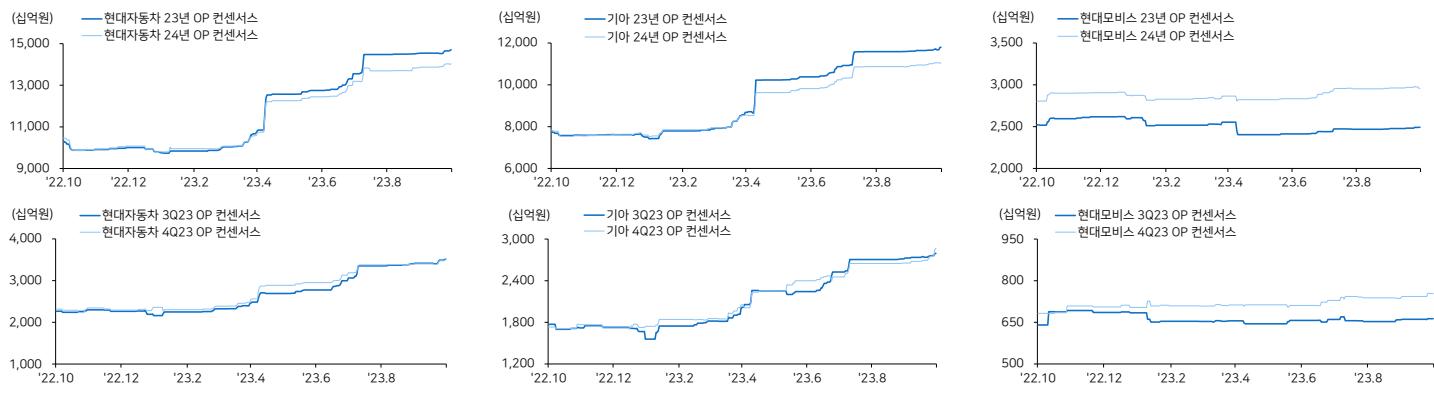
MOBILITY at a glance

2023. 10. 27 (Fr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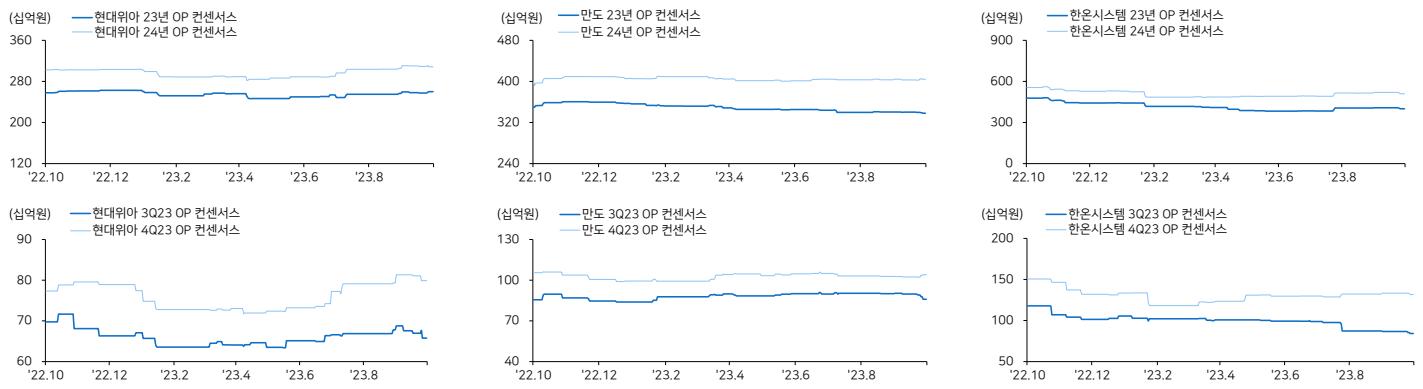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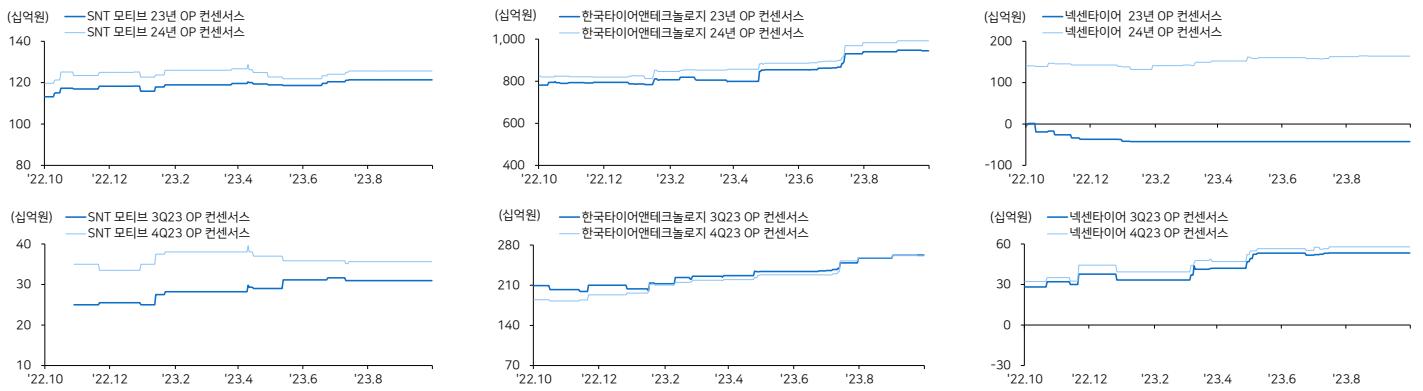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N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Tesla gets \$100 miln US ultra-fast charger order from BP EV charging unit (Reuters)

BP의 전기차 충전기 사업부가 미국 내 충전소 사업 확장을 위해 1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슈퍼차저 하드웨어를 주문. 회사에 따르면 첫 번째 충전소 인프라는 휴斯顿, 피닉스, 로스 앤젤레스, 시카고 및 워싱턴 각지에 설치될 예정

<https://han.gl/rAyLDy>

Ford's EV losses continue piling up in Q3 amid pricing pressure, UAW strike (Electrek)

포드는 3분기에 전년 대비 44% 증가한 20,962대의 EV 판매했지만, 전기차 사업부(Model e)에서 약 13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. 회사는 전기차 사업 부문에서 연간 약 4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힘

<https://han.gl/tSoHtZ>

Volkswagen says EV orders are down 50% in Europe (Electrek)

VW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올해 유럽 전기차 주문은 작년 30만대에서 50% 감소한 15만대 수준이라 밝힘. CEO는 금리 상승과 수요 둔화를 원인으로 지목했으며, 신규 ID.4와 ID.5의 출시 이후의 회복세를 기대한다며 덧붙임

<https://han.gl/FvqKOI>

中 전기차 시장 합동연회 가속화…스텔란티스, 링파오 지분 21% 매입 (서울신문)

스텔란티스는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링파오(림모티)의 지분 21%를 16억 달러(약 2조 1700억원)에 매입한다고 발표.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중국 시장 판매 부진을 타개하고 전기차 시장에 맞춰 전략을 전면 재설정할 방침

<https://han.gl/6mnqcQ>

삼성SDI,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유상증자 참여…5908억원 규모 (블로터)

삼성SDI는 26일 전자공시를 통해 Stellantis와의 배터리 합작법인인 StarPlus Energy LLC의 시설투자를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힘. 투자액은 5908억원으로 자기자본(17조 2175억원)의 3.43%에 해당하는 규모(11/16 투자 예정)

<https://han.gl/sUiutb>

Tesla starts deliveries of revamped Model 3 in China (CnEVPost)

테슬라는 일주일 전 중국 내 모델 3의 공식 판매를 시작한 후 본격 고객 인도를 시작. 신형 모델은 후륜 구동 버전과 듀얼 모터 사륜 구동 버전의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 중으로 시작 가격은 각각 259,900원(\$35,540)과 295,900원(\$45,540)

<https://han.gl/khZnGa>

현대차, 3분기 영업이익 3.8조…1년 전보다 146% ↑ (KBS)

현대자동차가 올해 3분기 3조8천억원(YoY +146.3%)의 영업이익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, 판매 대수 확대,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등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작년 3분기 판매보증총당금 설정 등의 기저효과 영향

<https://han.gl/QiRxFf>

美 자동차업계 파업 일耽락 되나…포드-UAW 임금협상 타결 임박 (한국경제)

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포드 자동차는 UAW가 강정 합의 할 전망. UAW는 이날 밤Nm 협상을 벌인 끝에 4년간 임금인상률 25% 달성을 제시한 포드의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드는 차래에만 임금을 11%를 올릴 방침

<https://han.gl/GeExAD>

사우디 정부, 전기차 타이어 합작공장 계약 초읽기…금호타이어 유력 (더구루)

Asharq News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는 공공 투자 기금을 통해 글로벌 타이어 회사 중 하나와 현지 전기차 타이어 공장 설립을 위한 계약 체결을 추진 예정. 업계는 현지 타이어 기업과 JV 설립 MOU를 체결한 금호타이어를 유력 후보로 추정

<https://han.gl/HXuXU>